

나주 외국인 확진자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검출

지난 10일 확진...치료 중 정밀검사 분석 결과 변이 검출
외국인 확진자 일가족 포함 접촉자 80명 전수검사 ‘음성’
확진자 직장·사회모임 등 커뮤니티 심층 역학조사 착수

전남 나주에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나주시는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확진자 A씨(전남 609번)를 정밀검사한 결과 영국발 변이 바

이러스가 검출돼 역학분석과 주변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경남 김해를 방문해 ‘김해 176번’과 접촉한 후 증상 발현으로 나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됐다.

전남 609번 확진 여파로 일가족과 친척 등 총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전남 609번과 일가족 3명을 제외한 4명은 퇴원 조치됐다.

방역당국은 현재 새로운 변종으로 세계 전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예의주시하며 지난달 말 전남 609번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전남 609번 환자에게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가족 구성원 3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번주 중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확진자 8명과 접촉했던 내·외국인(능동감시자·타 지역 검사자 포함) 80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

됐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확진자의 직장, 사회모임 등 커뮤니티 심층조사와 더불어 질병관리청과 전남도청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변이 바이러스 추가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A씨와 일가족 3명은 특별환자로 분류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 속에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세계 톱10’ 광주 AI데이터센터 본궤도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 예정인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감도.

국비 923억 포함 최소 1000억 데이터센터 운영 NHN(주)선정 오늘 광주서 착수식·투자협약

국비 923억 원을 포함하면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국가 단위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된다. 착공식은 이르면 5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데이터센터는 첨단3지구에 연면적 3144㎡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컴퓨팅 연산능력 88.5PF(페타플롭스), 저장용량 107PB(페타바이트)를 구축해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는 NHN(주)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8.85PF, 10.7PB를 제공하게 되며, 데이터센터 건물이 준공되는 2022년 말부터 88.5PF 규모의 시스템을 ‘광주 인공지능 특화 데이터센터’에 구축한 후 제공한다. 88.5 PF는 1초에 8경8500조 번의 부동(浮動) 소수점까지 연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누리온 5호기보다 3배가 넘는 기술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내 최초 AI특화 슈퍼컴퓨팅을 통한 세계 10대 국가데이터센터가 현실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고, 올해는 AI 광주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광주의 시간’을 만들겠다며 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국내 유일, 세계 10위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본궤도에 오른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공지능 광주시대의 서막을 열 국가 인공지능 특화 데이터센터 착수식이 4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지난달 4일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로 NHN(주)를 최종 선정한 지 꼬박 한 달만이다.

이날 착수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의 필요성과 ‘꿈의 프로젝트’인 국가 데이터센터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착수식이 끝난 후에는 NHN이 국내 최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과 광주 R&D 센터 구축과 인력 채용, NHN 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해 21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시, NHN,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간 3자 투자협약식이 열릴 예정이다.



영암 우편집중국, 명절 택배 분류 작업

설 연휴를 열흘 여 앞둔 2일 오후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우편집중국에서 우정청 직원들이 소포 택배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사진=전남우정청 제공)

‘코로나19 차단우선’ 올해도 함평나비축제 ‘취소’

4월 말 개최 예정인 제23회 축제 취소

백신 접종시기 감안해 취소 여론 높아

대표적인 봄 축제로 꼽히는 전남 함평나비대축제가 해를 넘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도 취소됐다.

함평군은 3일 4월 말 개최 예정이던 제23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데다 국내 3차 대유행 이후 무증상 등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조용한 전파’가 잇따라 확산하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앞서 함평군은 올해 나비대축제 개최 여부를 두고 지역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에서는 제한적 입장과 온라인 축제를

병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감염병 발생 위험과 비용 대비 개최효과 미미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또 이번 취소 결정에는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의 경우 내달부터 접종이 시작되지만 65세 이상은 5월부터, 일반 성인은 7월부터 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4월 축제 개최는 현실적으로 위험부담이 크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